

도시가계의 화폐태도유형과 지출행동분석

An Analysis of the Type of Attitudes Toward Money and Expenditure Behavior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대학원생 백은영

조교수 정순희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graduate student : Eun-Young Baek

Assistant prof. : Soon-Hee Joung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ype of attitudes toward mone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 Data were obtained from 398 household living in Seoul. Factor analysis was used for examining dimensions of attitudes toward money and cluster analysis for classifying the households by money attitudes.

This study found five money attitude dimensions, i.e., the Means of Success dimension, the Means of Pleasure dimension, the Means of Security dimension, the Symbol of Anxiety dimension, and the Parsimony dimension. Based on the variation in the dimensions, five money attitude types were identified, i.e., the Means of Success, the Means of Pleasure, the Means of Security, the Symbol of Anxiety, and the Parsimony.

I. 서론

국가경제는 각 가계의 경제가 기본이 되어 뒷받침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소비행태는 그 나라의 생산수준 및 생산구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투자재원이 되는 저축의 크기를 결정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계의 소비는 욕구충족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일뿐만 아니라 가계구성원의 인적자본의 형성이나 사회기능의 작용과 활성화를 위한 주요 투입요소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계소비의 대부분이 화폐라는 중요한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국가경제의 기본단위인 가계경제에의 화폐의 개

입은 가계의 경제적 기능을 화폐의 조달, 관리, 사용의 기능으로 전환시켰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가계는 화폐를 벌고 이를 관리하며 생존과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는데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Unterkircher, 1976; 강혜경, 1990)에서 재인용). 이러한 가계의 경제적 기능과 화폐간의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가계소비의 측면에서 볼 때, 가계가 화폐를 사용하는 기능인 소비지출행동을 이해하는 데에는 중심매개체로서의 화폐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사람들은 화폐를 다루는데 있어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를 나타내어 주므로 개인의 화폐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게 되면 소비자 지출 혹은 부채와 같은 화폐와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Hollowell & Grace, 1991). 또한 최근에는 투자를 위한 많은 자유재량의 자금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가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다른 일반 소비자들도 재정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특정 소수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재무 서비스의 확대는 재정상담가나 실계사들로 하여금 고객 개인의 주관적인 욕구를 알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객의 화폐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첫단계로 활용되기 시작했다(Wilhelm, Varcoe, & Fridrich, 1983).

개인은 화폐와 관련된 행동을 함에 있어서 때로 모순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중요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과 지속을 위해 존중과 관심의 상징으로서 화폐를 사용하기도 하며, 또 개인과 가계는 소비자부채나, 소비지출, 투자 등에 각기 다른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Porter & Garman, 1992). 이런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개인이나 가계의 화폐에 대한 태도를 규명하여, 특정 화폐태도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이들의 전형적인 지출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오랜시간동안 화폐에 관한 주제는 성에 관한 주제만큼 금기시되어왔기 때문에(Hollowell & Grace, 1991) 사람들의 화폐태도나 관련이슈에 대한 연구는 현재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가 경제활동의 기본 수단으로서의 화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살펴보고, 규명된 특정 화폐태도유형에 속한 도시가계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화폐태도유형에 따른 가계지출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화폐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화폐태도가 가계의 지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가계의 비합리적인 지출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바람직하지 못한 지출행동을 야기시키는 원인을 규명하고 바람직한 지출행동으로의 유도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정상담가나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관심이 있는 재정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화폐태도

화폐는 생존을 위한 필수도구이며, 안락함, 권력이나 안전, 자유, 혹은 다른 심리학적인 만족을 획득하는데 사용된다(Hollowell & Grace, 1991; Goldberg & Lewis, 1978). 또한 화폐는 직무 동기의 하나로서도 중요하게 여겨질뿐 아니라, 인간 행동 전반에 걸쳐 주요한 동기로서 작용한다(Wilhelm, Varcoe & Fridrich, 1983).

그러나 모든 개인이나 가계가 화폐에 대해서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화폐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기질이나 인생경험 혹은 주어진 환경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사람마다 각기 다른 심리적 가치를 부여한다. 개인에 따라 화폐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의미 혹은 매우 다양한 심리적,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는 화폐가 갖는 정서적인 중요성과 정신적인 기질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Hollowell & Grace, 1991).

이렇듯 화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폐의 심리적, 상징적 의미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드른 편이다(Bailey & Gustafson, 1991; Furnham, 1984; Richins, 1994; Yamauchi & Templer, 1982; Wilhelm, Varcoe & Fridrich, 1993).

Hallowell와 Grace(1991)는 사람들의 화폐에 대한 스타일을 나누었는데, 크게 광신자(enthusiasts), 지출자(spender), 미관여자(uninvolved), 회의론자(skeptics)의 4가지 스타일로 나누고 각각을 정도에 따라 몇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여 그들의 화폐에 대한 의미와 특성을 서술하고 그에 따른 금전관리 스타일을 살펴보고 있다.

Goldberg와 Lewis(1978)는 화폐의 여러가지 의미를 서술하면서 화폐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화폐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의미는 개인적 비교의 척도에 의해서 판단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화폐의 심리학적 의미인 의미를 보호수단(security), 힘(power), 사랑(love), 자유(freedom)로 나누어 보고 그들에게 의미하는 화폐의 의미와 화폐사용 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Yamauchi와 Templer(1982)는 화폐에 대한 태도를 첫째, 지위, 중요성, 우월감이나 성취들을 내포하고 있는 권력-지위(power-prestige)의 측면, 둘째, 긍정, 신뢰, 편안함과 이와 반대 개념인 부정적, 불안, 실망과 같은 측면인 안전감(security), 세째, 인식, 축적, 다소 강박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저장감(retention)의 세가지 측면에서 나누고 있다. 이를 기본으로 다시 5가지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Wilhelm, Varcoe 그리고 Fridrich(1993)은 화폐에 대한 태도를 첫째, 돈에 대해서 강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으로서 화폐의 지위와 중요성에 몰두하는 사람, 둘째, 화폐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태도를 지닌 사람, 세째, 기분전환을 위해 화폐를 사용하는 지출자적 태도를 지닌 사람, 네째, 화폐를 노력의 결과로 보는 태도를 지닌 사람의 4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태도에 따라 재정적인 만족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았다.

이와 같이 화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화폐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개인이 화폐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상이하 며 몇가지 형태로 유형화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소비지출 연구동향

소비지출은 소득을 사용하여 구매하는 재화와 용역의 양을 화폐단위로 나타낸 값으로서 자료획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비교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소비의 지표이다(Magrabi, Chung, Sohn & Yang, 1991; 손상희, 1993).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는 단일 품목에 대한 연구(김미향 & 한재숙, 1988; 김영숙 & 왕인숙, 1989)와 전소비품목별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윤정혜, 1984; 양세정, 1991; 김정숙, 1992) 그리고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김기옥 & 이승신, 1990; 강이주 & 박명희, 1990; 정영숙, 1993; 손상희, 1993)들이 있다.

단일품목에 관한 연구는 특정품목에 대한 지출과 제반요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김미향과 한재숙(1988)은 식료품비 지출에 대한 연구에서 앵겔이론을 기초로 가계의 식료품비 지출액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앵겔 계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식료품비의 구성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앵겔의 법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외식비와 소득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외식비가 소득변화에 따라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품목이라고 보고하였다.

전 소비품목별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로는 김정숙(1992)은 도시 근로자 가계의 소비지출의 변화 양상과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가계의 소비지출은 그 소득 수준 뿐 아니라 절대 소득수준의 변화, 상대가격의 변화, 소비단위의 차이, 사회경제적인 변화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한편 소비패턴의 측면에서 소비지출을 연구한 바를 살펴보면, 손상희(1993)는 미국 가계의 지출자료를 사용하여 가계소비패턴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가계 소비패턴의 구조는 세 차원의 소비패턴과 다섯개의 소비패턴 유형이 규명되었다. 다섯개의 소비패턴은 주거지배형 소비유형, 온건균형

적 소비유형, 개인교통 지배적 소비유형, 건강 및 가내필수재 강조 소비유형, 사회적 강조 소비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패턴유형은 실제적 지출 행태의 차이를 잘 반영하고 각 유형에 속한 가계의 특성에 따른 독특한 생활양식을 암시하며, 소비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가계의 복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였다.

이상의 소비지출행동에 관한 연구동향을 보면,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는 객관적 자료와 소비지출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연구에서 소비지출행동을 보다 유형화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가 객관적 자료의 분석과 양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소득이나 가계 구성변수들 외에도 개인취향과 같은 변수가 일반적으로 선호에 영향을 미쳐서 가계의 소비지출을 변화시킨다(Eastwood, 1985; 김정숙, 1992에서 재인용)고 한 것처럼 현대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은 객관적 자료의 분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이나 태도와 같은 주관적 변수를 고려하여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선호나 행동의 동기와 같은 주관적 변수를 고려한 연구는 미흡함을 알 수 있다.

3. 화폐태도와 소비행동

지금까지 소비지출의 측면에서 대상자의 화폐태도유형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각 유형에 속하는 개인이나 가계의 특성과 소비행동을 규명한 연구는 없었고, 단순하게 화폐태도를 규명하고 화폐태도가 금전관리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이나 화폐태도와 소비성향간의 관계를 기초적으로 분석하는 소비행동 관련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화폐태도와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들을 개괄하기로 한다.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의 하나로서 태도 변수를 분석하고 있으며, 태도 변수 가운데서도 화폐에 대한 태

도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화폐태도를 규명하면 화폐를 둘러싼 사람들간의 갈등을 줄이고 화폐와 관련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김기옥 & 이승신, 1990; 정은주, 1983; Katona, 1975).

또한 화폐와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몇몇 심리경제학자들이 경험적인 미시경제와 행동심리학을 섞은 틀로서 연구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개개인의 행동의 상호작용보다는 보다 큰 단위의 경제학적 행동에 초점을 두었으며, 몇몇 가정경제학자들은 가족 상호작용의 틀을 통하여 화폐의 심리·사회적 중요성을 연구했다(Doyle, 1992; Heffern, 1982)

화폐에 대한 태도와 재정적인 측면을 논의한 연구를 살펴보면, Hallowell과 Grace(1991)의 화폐 스타일과 화폐관리 유형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그들의 결과에 따르면 화폐에 대해 광신자적 스타일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화폐를 획득·소유하는데 열정을 지니고 있으며, 화폐를 모으는데 주력하거나 화폐를 쓸때에는 불절적인 것을 구입한다기 보다는 자존심을 구입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출자적 스타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화폐를 다루는데 있어서 대단히 낙천적인 성향을 지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며 현실 적응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미래를 위하여 저축을 하거나 재무관리를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미관여자적 스타일은 화폐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어서 회피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 이들은 재정문제를 통제하는데 있어서 의존적이며 충동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회의론자적 스타일은 의심이나 불신감이 많은 사람들로서 안정지향적인 보수적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화폐태도와 소비와의 관계를 논의한 연구를 보면, 막은아(1994)는 현시적 소비와 자기 존중감, 사회적 인정욕구, 화폐태도 사이의 관계성에 관하여 연구했는데, 이들 세 변인이 현시적 소비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현시적 소비행동은 성별, 학력, 가족수, 수입에 의해서는 각 수준별로 현시적 소비의 정도에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소비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과 관련되었으며, 또한 자기 존중감이나 사회적 인정 욕구보다는 개인의 화폐태도에 의해 크게 차이가 나타나 화폐에 대한 태도는 현시적 소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가계의 소비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개별 가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주관적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화폐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화폐를 벌고 저축하며 사용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Goldberg & Lewis, 1978) 화폐태도는 여러 주관적 변수 가운데 가계의 화폐지출행동을 설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가계의 지출행동과 주관적 변수 중에서도 특히, 화폐태도유형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미비하므로 이를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문제의 설정

- 연구문제 1 화폐태도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연구문제 2 화폐태도유형에 따른 각 가계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화폐태도유형에 따른 각 가계의 지출행동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크게 화폐태도를 측정하는 문항과 지출행동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이다. 화폐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Yamauchi와 Templer(1982)의 'The Development of a Money Attitude Scale' 과 Wilhelm, Varcoe 그리고 Fridrich(1993)가 사용한 척도를 바탕으로 어색한 말을 보완

하고 몇가지 척도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5점 Likert Type 척도로 총 32문항으로 제작하였다(요인분석 표 참조). 32문항으로 예비조사를 한 결과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3문항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 결과, 5가지로 묶인 요인 중 하나의 구성개념에 포함되는 문항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강하기 위해 연구자가 한 문항을 고안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다. 신뢰도 검증에 있어서 문항간 내적일치도에 근거한 Cronbach's α 계수는 .85였다.

한편 지출행동에 관한 문항은 총지출과 비목별 지출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총지출은 저축이나 투자를 위해 쓴 돈, 주택부금을 제외한 모든 지출에 대한 월평균 총 지출액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비목은 도시가계연보에 제시된 9대 비목을 근거로 수정한 10대 비목분류를 사용하였다. 즉 식생활비, 외식비, 의복 및 신발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잡비, 교육비로 나누어 측정된 각 비목은 심리경제학자인 Katona(1975)가 나눈 바와 같이 크게 필수재와 선택재로 나누어 살펴 보았으며, 양세정(1991), 정은주(1993)의 연구를 토대로 식비, 의복 및 신발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는 필수재의 범주에, 외식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잡비, 교육비는 선택재의 범주에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3. 자료 및 분석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계로서, 부부 중 가계의 지출행동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1996년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여 총 550부 중 442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자료중 부실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총 398부를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화폐에 대한 태도 분류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적용하였고, 화폐에

대해 유사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가계를 묶어 그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대상을 그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질적 집단으로 묶어주는 방법이다. 본 분석에서 각각의 가계는 요인에 의해 묶어진 것으로서 각 요인에 대한 가계의 요인점수를 기초로 하여 수행되었다. 요인점수의 동질성을 측정하는 데는 유클리드의 거리사승법(Squared Euclidean distance)을 사용하였고 동질적인 가계들을 묶는 방법으로 워드방법(Ward's method)을, 군집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나무그림(dendrogram)을 사용하였다(손상희, 1993). 파악된 군집의 수를 이용하여 군집의 수를 지정한 뒤 FASTCLUS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FASTCLUS는 많은 양의 관찰치(100-100,000)를 갖는 SAS data set의 경우의 군집분석에 사용하는 방법이다(김충연, 1996). 따라서 본 연구의 data가 300개를 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져 이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기초자료의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중 남성은 188명, 여성은 210명으로 각각 전체의 47.2%, 52.8%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2세부터 65세까지 분포하고 평균 연령은 약 39세이며 평균 가족수는 3.85명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가 8.5%, 고졸이 44.5%, 초·대졸인 경우가 37.7%,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가 9.3%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본인 직업이나 배우자 직업에서 주부나 무직, 기타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본인 직업이나 배우자 직업에서 주부나 무직, 기타인 경우가 많은 것은 응답자 중 전업주부가 응답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백40만2천원으로서 '96년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동향'에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98)

	변 수(평균)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88	47.2%
	여	210	52.8%
연령 (39.1세)	20대	53	13.3%
	30대	171	43.0%
	40대	114	28.6%
	50대이상	60	15.1%
가족수 (3.9명)	3인 이하	125	31.4%
	4-5인	246	61.8%
	6인 이상	27	6.8%
교육수준	중졸 이하	34	8.5%
	고 졸	177	44.5%
	초대졸	150	37.7%
	대학원졸 이상	37	9.3%
본인직업	주부·무직·기타	130	32.7%
	단순 노무직	11	2.7%
	고용된 판매기술직	16	4.0%
	자영업	60	15.1%
	사무직	67	16.8%
	전문기술직	46	11.6%
	경영관리·전문직	68	17.1%
배우자직업	주부·무직·기타	132	33.8%
	단순 노무직	15	3.8%
	고용된 판매기술직	12	3.1%
	자영업	74	18.9%
	사무직	58	14.8%
	전문기술직	24	6.1%
	경영관리·전문직	76	19.5%
월평균가계 소득 (240.2만원)	150만원이하	60	15.1%
	150-250만원	171	43.0%
	250-350만원	105	26.4%
	350만원이상	62	15.6%
주택소유형태	자가	269	67.6%
	타가	129	32.4%
부채보유	유	259	65.1%
	무	139	34.9%

*빈도의 차이는 결측값(Missing Value)에 의한 것임.

평균 소득이 2백15만2천원(중앙일보, 1997)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형태에 있어서는 자가인 경우가 67.6%로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자신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금융기관 부채, 일반사채, 기타 월부나 신용카드 미불입금이 있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65.1%로

나타났다.

2. 연구문제의 분석

1) 화폐태도의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화폐태도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

인의 전체 적재치는 직교회전 결과 11.70으로 각 요인은 총 분산의 39%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요인들은 최종 요인분석의 결과에 의해 요인적재치가 .30 이상인 변수들로 나누어 <표 2>에 정리하였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 1은 8개의 문항이 해당된다. 요인 1로 설명되는 분산은 9.90%로 나타났으며 다섯개의

<표 2> 화폐 태도 요인분석

	요인 Eigen	적재치 Value	문항 내용
요인1 성공의 척도	0.6742 0.6471 0.6131 0.5905 0.5239 0.4856 0.4349 0.3239	2.9665 (9.90)	① 나는 때때로 그들의 능력이나 성취와는 관계없이 나보다 돈을 덜 가지고 있는 사람 보다는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낀다. ② 나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같다. ③ 나는 돈이 성공의 궁극적 상징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④ 나는 때때로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자랑할 때가 있다. ⑤ 나는 최고급품을 갖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 편이다. ⑥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대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고급스런 물건을 갖는 경향이 있다. ⑦ 나는 가능한한 가장 비싼 물건을 사는 편이다. ⑧ 물건을 살때, 그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 이라는 생각을 하며 구입할 때가 있다.
요인2 감정 충족의 도구	0.6943 0.6421 0.5081 0.4791 0.4469 0.4437 0.4073	2.7442 (9.13)	① 기본전환을 위해 돈을 쓴다. ② 나는 기분이 나쁠 때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 ③ 돈 지출계획이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④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신용카드나 월부로 사는 편이다. ⑤ 별로 원하지 않는 물건이라도 세일중이거나 가격이 인하되면 사는 경향이 있다. ⑥ 나는 유명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편이다. ⑦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 진다.
요인3 불안의 원천	0.6331 0.5679 0.4975 0.4950 0.4707 0.3364	2.1180 (7.07)	① 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늘 걱정하는 편이다. ②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으면 걱정 된다. ③ 나는 돈이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편이다. ④ 나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한다. ⑤ 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다. ⑥ 돈의 양이 크든 적든간에 돈을 쓰는 결정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요인4 인색성	0.6596 0.6333 0.5381 0.3590 0.3062	2.0115 (6.70)	① 비싼 물건을 살때마다 꼭 속아서 사는것 같다. ②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은 '너무 비싸서 못사겠다' 라고 말하는 편이다. ③ 물건을 산 후에는 꼭 '다른데서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느낌이 든다. ④ 나는 미래를 위해서 일상용품을 구입하는 데도 인색한 편이다. ⑤ 어떤 목적에서든지 뭔가를 살때는 가격을 제일 먼저 고려한다.
요인5 안전의 도구	0.6971 0.6924 0.6533 0.5258	1.8690 (6.20)	① 나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는 편이다. ②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마련해 두고 있다. ③ 나는 미래를 위해 재정 계획을 하는 편이다. ④ 계획한 예산에 맞추어 돈을 쓰는 편이다.
		11.70 (39.0)	

요인중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이 요인은 인생의 성공을 다른 무엇보다도 화폐를 많이 버는 것에 두며,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성공 했음을 과시하기 위하여 화폐를 사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요인 1은 화폐를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요인 2는 총 7문항이 포함되며 요인 2로 설명되는 분산은 9.13%이다. 이 요인은 주로 화폐와 감정적 측면이 결합한 태도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기분에 따라 계획없이 화폐를 지출하며 따라서 충분한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거나 감정의 충족을 위하여 유명브랜드를 구입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요인 2는 화폐를 「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요인 3에는 총 6문항이 해당되며 이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은 7.07%이다. 이 요인은 화폐에 대해 상당히 의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화폐를 잘 다루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화폐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요인 4는 총 5문항이 해당되며 이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은 6.07%이다. 이 요인은 화폐를 사용하는데 있어 상당히 인색한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소비를 보유하고 있다기 보다는 화폐에 대한 「태도 자체가

인색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요인 5는 총 4문항이 이에 해당하며 총 분산의 6.20%를 설명하고 있다. 이 요인은 화폐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화폐를 「미래에 대한 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2) 화폐태도유형 및 유형별 가계 특성

화폐태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점수의 동질성을 기본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5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졌으며 <표 3>에 평균 요인점수와 표준편차가 5개의 유형별로 요약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요인점수가 그 자체의 양의 표준편차보다 크면

높은 요인점수를 가진다고 보고, 그 자체의 표준편차의 음의 값보다 작으면 낮은 요인점수를 가진다고 보며, 그 사이값인 경우 중간으로 보았다(손상희, 1993). 요인점수에 따른 5개의 유형은 화폐를 「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유형», 「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유형», 「인색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형»,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유형», 「불안감을 지니고 있는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화폐태도유형별 가계의 특성은 <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화폐태도에 의해 유형 1은 화폐를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요인이나 화폐에 대해 불안

<표 3> 유형별 평균 요인점수와 표준편차

요인	군집	감정충족의 도구	안전의 도구	인색한 태도	성공의 척도	불안의 원천
① 성공의 척도		-0.42 (.62)	-0.56 (.47)	0.71 (.63)	0.92 (.65)	-0.60 (.53)
② 감정충족의 도구		1.06 (.59)	-0.61 (.51)	-0.41 (.73)	0.40 (.74)	-0.31 (.61)
③ 불안의 원천		-0.06 (.74)	-0.47 (.76)	0.71 (.86)	-0.09 (.62)	0.28 (.83)
④ 인색한 태도		0.38 (.80)	-0.17 (.74)	0.75 (.64)	-0.58 (.71)	0.06 (.76)
⑤ 안전의 도구		0.13 (.69)	0.48 (.58)	0.23 (.74)	-0.19 (.75)	-1.06 (.67)

()안은 표준편차임.

감을 가지는 요인, 그리고 인식하거나 안전의 도구로 생각하는 요인에서는 중간값을 가진 반면 화폐를 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요인 2에 대해서는 높은 값을 가짐으로서 화폐를 「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에는 전체 가계의 17.1%인 68개의 가계가 해당되며, 연령은 전체 평균보다 낮으면서 5개의 유형중 가장 낮은 36.5세로 나타났고 월평균 소득은 가장 높은 2백 53만 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61.8%로 훨씬 많았는데, 이는 여성인 경우에 화폐를 현재 즐길 수 있는 물건이나 경험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Prince(1993a)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직업별로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교육수준도 대졸이상인 사람이 61.8%로 타 집단에 비해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2는 화폐를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요인과 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요인에서는 낮은 값을 갖고, 화폐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나 인식함 그리고 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요인에서는 중간값을 보여 불안한 마음에서 다소 인식하기도 하지만 화폐를 「미래에 대한 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유형」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유형에는 전체 가계의 26.4%로 가장 많은 105개의 가계가 해당되었는데, 미국의 경우 많은 사람이 화폐를 자존감과 권력의 상징으로 여긴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Prince, 1993b). 이러한 국가간의 차이는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자녀에게 큰 가치를 둬서 따라 현재 자신을 위한 지출은 보류하면서 자녀교육이나 자녀의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가계의 평균 가족수는 4명으

<표 4> 화폐태도유형별 가계 특성

가 계 특 성	화 폐 태 도 유 형					전 체
	① 감정 충족의 도구	② 안전의 도구	③ 인식한 태도	④ 성공의 척도	⑤ 불안의 원천	
해당 가계의 수(%)	68(17.1)	105(26.4)	59(14.8)	95(23.9)	71(17.8)	398
연 령(세)	36.5	38.3	40.8	39.4	41.1	39.1
가족수(명)	3.7	4.0	3.9	3.7	3.9	3.9
월평균 가계소득(만원)	253.8	237.1	239.3	250.2	218.7	240.2
월평균 총가계지출(만원)	156.2	146.4	133.9	157.0	149.9	149.4
총가계자산(만원)	17,899.1	18,958.6	17,476.0	22,332.0	17,408.7	19,094.1
성 별(%) 남	38.2	52.4	47.5	45.3	50.7	47.2
여	61.8	47.6	52.5	54.7	49.3	52.8
직 업(%) 주부·기타	35.3	34.3	27.1	31.6	33.8	32.7
비전문직	26.5	44.8	45.8	33.7	42.3	38.6
전문직	38.2	21.0	27.1	34.7	23.9	28.7
교육수준(%)						
중졸 이하	7.4	8.6	15.3	3.2	11.3	8.5
고 졸	30.9	52.4	50.8	40.0	46.5	44.5
초·대졸이상	61.8	39.0	33.9	56.8	42.3	47.0
주택 소유형태(%)						
자 가	64.7	63.8	76.3	71.6	63.4	67.6
임 대	35.3	36.2	23.7	28.4	36.6	32.4

* 직업은 9가지로 측정되었으나 여기서는 빈도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주부·무직·기타/비전문직은 단순노무직, 고용된 판매기술직, 자영상인·제 조업자와 자영기술자, 사무직 해당자/전문직은 전문기술직과 경영관리직과 전문직 그리고 중소기업주, 자본가, 정부의 고위관리에 해당하는자로 분류함.

로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볼때 가장 많았고, 총 지출액은 「인색한 태도를 지닌 유형」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돈을 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사람일수록 현재의 소득을 현재의 욕구충족을 위한 지출에 사용하기 보다는 미래를 위한 준비에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은 남성이 52.4%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직업은 비전문직 종사자가 그리고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인 경우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유형 3은 화폐를 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요인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요인, 그리고 안전의 도구로 생각하는 요인에는 중간정도의 점수를 나타내었고 성공의 척도와 화폐에 대해 인색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요인에 대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다른 요인에 비해 화폐를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경향도 가지고 있으며 그런만큼 또 화폐를 약착같이 모으려는 인색한 태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요인 점수를 비교해 볼 때 화폐에 대해서 「인색한 태도를 지니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가계는 전체 가계의 14.8%인 총 59가계로 가장 적게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40.8세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타유형에 비해 월평균 총 가계지출이 약 1,88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색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만큼 타유형 보다 화폐의 사용을 통제하여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비전문직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유형 2와 마찬가지로 고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택보유에 있어서는 자가인 경우가 76.3%로 다른 유형에 비해 주택 자립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4는 화폐를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차원에는 높은 값을 가지면서 다른 네가지 요인에서는 중간값을 가져 화폐를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전체 가계의 23.9%인 총 95개의 가계가 이에 해당되며 이 유형에 속한 가계는 가계총자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유형에 비해 자가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도 71.6%로 화폐에 대해 인색한 태도를 지닌 유형 3 다음으로 높은 보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

과는 화폐를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사람으로서 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므로 자산을 많이 보유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형 4에는 여성이 더 많았으며 직업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었고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인 사람이 가장 많았다.

유형 5는 성공의 척도와 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요인에서는 낮은 점수를 갖고 화폐를 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태도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요인, 그리고 인색한 요인에는 중간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화폐에 대해 불안감을 지니고 있어 감정을 충족하는데 화폐를 사용하기도 하면서 또 이를 잘 다룰 줄 몰라서 무조건 사용을 통제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을 대표하는 특성은 화폐에 대해 「불안감을 지니고 있는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388가계중 17.8%인 71개의 가계가 이에 해당되며 평균연령은 41.4세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urnham(1984)의 연구에서 영국인의 경우 연령이 많은 응답자일 수록 그들의 재정적 미래에 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가장 낮았으나 지출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주택소유에 있어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 타가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화폐태도유형별 소비지출행동

화폐태도유형별로 지출행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계의 지출상황을 각 비목별로 정리하였다. 각 비목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크게 필수재와 선택재의 범주에 포함하여 둘로 나누었다. 이는 각각의 비목별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돈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가계의 지출행동을 살펴보는 것이니 만큼, 태도가 누구나 다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목과 선택적으로 지출하는 비목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필수재와 선택재의 백분율은 각각 필수재에 해당하는 비목의 평균값의 합과 선택

재에 해당하는 비목의 평균값의 함이 월평균 총지출의 평균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폐를 「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유형」인 유형 1의 비목별 지출상황을 살펴 보면 필수재에 해당하는 비목 가운데서는 의복및 신발비에 대한 지출 비율이 다른 유형과 비교할때 화폐를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집단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광열·수도비와 보건·의료비는 평균 지출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선택재에 해당하는 비목 가운데서는 교통·통신비와 잡비를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식비에 대한 지출 비율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화폐를 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이 유형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복이나 신발은 가장 충동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목이며, 또한 필수적인 지출비목에 해당되면서도 사람들이 소

독향상에 따라 기본적인 욕구충족의 단계를 넘어서 자기표현의 욕구가 커지면서 개성화, 다양화를 추구하여 고급 의복 및 신발제품을 구매하려고 하기 때문이다(국은경제연구소, 1993).

따라서 이 유형의 경우 의복 및 신발비는 필수재의 범위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선택재에 해당하는 가운데 잡비의 경우 이 비목에 대한 지출 비율이 높은 이유는 잡비 안에 이·미용비가 포함되어 있어 의복 및 신발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화폐를 「안전의 도구로 생각하는 유형」인 유형 2의 경우 비목별 월평균 지출상황을 살펴보면, 식비와 교육비는 전체 평균지출액 보다 높았으나 외식비나 교양오락비에 대한 지출비율은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그밖에 나머지 지출비목들은 전체 평균지출액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유형의 근검절약하는 태도가 반영

〈표 5〉 화폐태도유형별 비목별 지출과 구성비율

(단위:%)

월평균 지출		화폐태도유형					전체
		감정충족의 도구	안전의 도구	인색한 태도	성공의 척도	불안의 원천	
필수재	식비	20.2 (31.6)	23.2 (33.9)	17.8 (23.8)	20.8 (32.6)	21.6 (32.4)	21.1 (31.5)
	의복및신발비	11.8 (18.4)	10.1 (14.8)	11.2 (15.0)	12.2 (19.0)	10.9 (16.4)	11.1 (16.7)
	주거비	6.5 (10.2)	5.4 (7.9)	8.1 (10.8)	6.9 (10.9)	5.1 (8.1)	6.4 (9.5)
	광열·수도비	4.3 (6.7)	5.1 (7.5)	6.1 (8.2)	4.8 (7.6)	4.3 (6.4)	4.9 (7.3)
	보건·의료비	3.3 (5.1)	3.1 (4.6)	5.6 (7.5)	3.1 (4.9)	3.0 (4.6)	3.5 (5.2)
	총 %	46.1%	46.9%	48.8%	47.8%	45.2%	47.0%
선택재	외식비	10.4 (16.1)	10.4 (15.2)	9.9 (13.2)	11.4 (17.8)	10.3 (15.5)	10.5 (15.7)
	교양·오락비	4.5 (7.1)	5.0 (7.3)	5.8 (7.8)	5.5 (8.7)	4.3 (6.4)	5.0 (7.5)
	교통·통신비	11.2 (17.5)	9.5 (13.9)	10.0 (13.4)	9.6 (15.1)	10.9 (16.4)	10.2 (15.2)
	잡비	9.6 (15.0)	8.7 (12.7)	9.0 (12.1)	9.5 (14.9)	9.1 (13.7)	9.2 (13.7)
	교육비	18.2 (28.5)	19.5 (28.6)	16.5 (22.1)	16.2 (25.5)	20.2 (30.0)	18.1 (27.1)
	총 %	53.9%	53.1%	51.2%	52.2%	54.8%	53.0%

*()안은 월평균 지출액임 (단위:만원)

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화폐에 대해 「인색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유형」인 유형 3은 비목별 월평균 지출상황은 식비와 외식비에 대한 지출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 생필품의 하나인 식비의 값이 낮음으로서 화폐에 대한 인색한 태도가 지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외식비와 잡비, 교육비를 줄임으로서 총지출에 있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필수재와 선택재 지출로 나누어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선택재에 해당하는 비목에 있어서는 교양·오락비를 제외한 외식비, 교통·통신비, 잡비, 교육비의 전 비목에 대한 지출 비율이 평균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어 화폐에 대해 인색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유형인 만큼 지출을 보류할 수도 있는 총선택재에 대한 지출비율은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를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유형」인 유형 4는 월평균 비목별 지출비율에 있어서 식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교육비는 평균수준 혹은 그 이하의 지출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의복 및 신발비와 외식비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교양·오락비에 대한 지출 비율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화폐의 사용을 통하여 자신을 내보일 수 있는 비목에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폐를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화폐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같은 특성의 일면은 체면을 중시하는 성향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체면중시성향은 조사결과 한국인의 성격요인 중 하나로서 체면중시성향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신분에 걸맞는 소비를 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서라도 경제수준을 넘어 신분에 맞는 소비행동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대흥기획, 1994: 백경미, 1995에서 재인용), 따라서 화폐를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사람의 경우 타인에 대한 체면중시성향이 지출에 반영되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화폐에 대해 「불안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유형」인 유형 5의 비목별 월평균 지출상황을 살펴보면,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볼 때, 교육비에 대한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재에 대한 지출비율은 식비를 제외한 전 비목이 평균이하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총선택재에 대한 지출비율은 5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택재에 대한 지출 비율이 높은 것은 교육비에 대한 지출 비율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유형의 교육비 지출이 높은 이유는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태도의 특성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화폐에 의존하면서도 이를 잘 다루지 못해 불안해 하는 유형 5의 특성상 자신없는 물질자원의 투자나 소비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고자 하는 성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화폐에 대한 불안감이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져 그러한 불안감의 해소를 위하여 다른 지출은 줄이면서까지도 교육비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89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이들이 경제활동의 기본 수단으로서의 화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살펴보고, 규명된 화폐태도유형에 속한 가계의 특성과 지출행동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군집분석의 결과 화폐를 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유형, 미래의 안전 도구로 여기는 유형, 인색한 태도를 갖는 유형,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유형, 불안의 원천으로 여기는 유형을 포함한 총 5가지 화폐태도유형이 발견되었다. 화폐를 「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유형」은 화폐를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사용하는 유형으로 평균 연령은 가장 낮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직업별로는 전문직 종사자가 많았으며 월평균 소득은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도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화폐를 「미래의 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유형」은 화폐를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이에 해당하는 가계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비전문직 종사자가 많았고 고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에 대해 인식한 태도를 지니는 유형」은 화폐사용에 있어 통제적인 행동을 취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가계는 월평균 총지출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주택보유율은 가장 높았다. 「화폐를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유형」은 자신의 성공을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화폐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월평균 총지출이 가장 많았고 여성인 경우가 많았고 대졸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화폐를 불안의 원천으로 여기는 유형」은 화폐가 관련된 상황에서 걱정·불안을 느끼는 유형으로 평균연령이 가장 높았고 월평균소득과 주택보유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폐태도유형별 지출행동을 살펴보았을 때, 각 유형별로 독특한 지출행태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즉 화폐를 「감정 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유형」과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의복이나 신발, 외식비와 같은 비목에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충동적, 과시적 태도나 체면중시적인 태도가 반영되어 있었으며, 화폐를 「미래의 안전의 도구로 여기고 있는 유형」은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한 전 비목에서 전체 평균이나 그 이하의 지출비율을 보이고 있어 근검절약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었다. 한편 화폐에 대해 「인식한 태도를 지닌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식비의 지출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선택재에 대한 지출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 화폐에 대한 인식한 태도가 지출에 반영되어 나타났으며, 「불안감을 지니고 있는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많았는데, 이는 화폐에 대해 불안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만큼 화폐와 관련된 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보다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출중 많은 비율을 교육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가계가 화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서로 상이하며 각 유형별로 돈을 사용하는 행동이 다를 수 있다. 즉, 소득이

나 물적자원, 또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외에도 가계의 경제적 행동에, 태도와 같은 주관적인 변수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가계가 가지고 있는 화폐에 대한 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유형별 분류함으로써 현 경제상황 하에서 가계의 경제행동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데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무계획 서비스가 고객에게 영향을 주는 심리적, 재정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과정(Dwyer, 1989)인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개별 가계의 특성에 맞춘 재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상담가나 재정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개인에 있어서는 자신이 어떠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여 자신의 재정설계시 참고로 활용함으로써 소비자 재정의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비지출 비목은 도시가계연보와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10대 비목으로 분류한 것으로, 화폐태도에 따라서 어떠한 특정비목의 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10가지 비목은 화폐태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목도 있었으며 또한 화폐태도가 어떠한지간에 가계 전체적 측면에서 지출되어야만 하는 비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화폐태도라는 주관적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몇몇 비목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비목을 재구성하였는데,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10가지 비목을 필수재, 선택재로 나누어 본 것에 그쳤는데 연구의 한계가 있다. 또한 필수재와 선택재의 측면에서도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의복 및 신발비와 같은 비목의 경우 일정 소득수준까지는 생활필수재적 성향을 띠지만 그 이상의 소득 수준에서는 소득탄력성이 높은 선택재 내지 고급재적 성향을 띠게 되는 재화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성향을 고려한 지출행동의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지출비목의 분류나 선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진다.

■ 참고문헌

- 1) 강이주, 박명희(1990).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2), 84-99.
- 2) 강해경(1990).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에 관한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28(30), 87-103.
- 3) 국은경제연구소(1993). *한국인의 소비생활 서울:21세기 복스*.
- 4) 김기욱, 이승신(1990).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진망과 소비지출 패턴. *소비자학연구*, 1(2), 15-31.
- 5) 김미향, 한재숙(1988). 식료품 소비구조의 분석: 소득을 중심으로(1975-1985). *대안가정학회지*, 26(1), 109-122.
- 6) 김영숙, 왕인숙(1989). 도시가정의 피복비 소비지출분석. *대안가정학회지*, 27(4), 21-39.
- 7) 김정숙(1992). 도시근로자가계의 소비지출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35.
- 8) 박은아(1994). 자기존중감, 사회적 인정 욕구, 돈에 대한 태도에 따른 현시적 소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9) 백경미(1995). 도시주부의 과소비상향과 영향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10) 손상희(1993). 가계소비패턴의 구조. *소비자학연구*, 4(2), 51-73.
- 11) 양세정(1991).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8, 54-67.
- 12) 윤정혜(1984). 도시 및 농촌가계의 소비지출구조의 분석. *대안가정학회지*, 2(2), 85-100.
- 13) 이태희(1990). 고등학생들의 돈에 대한 의미 판단 차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14) 정영숙(1993). 가계의 소비지출패턴: 대구, 경북 지역 가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3(2), 23-38.
- 15) 정은주(1993). 기혼여성의 취업이 선택적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16) Bailey, W.C. and Gustafson, A.W.(1991).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factors and attitudes toward money. *Handbook of Behavioral Economics*, 2A, 271-285.
- 17) Doyle, A.(1992). Toward a Psychology of Mone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5(6), July, 708-724.
- 18) Furnham, A.(1984). Many sides of the coin: the psychology of money usag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 95-103.
- 19) Goldberg, H. and Lewis, R.T.(1978). *Money Madness: The many sides of coin*. New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 20) Hallowell, E.M. and Grace, W.J.(1991). *Money and Mind: Money style*. NewYork: Plenum Press.
- 21) Heffern, C. (1982). Determinants and patterns of family sav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1), 47-55.
- 22) Katona(1975). Psychology and Consumer Economic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 1-8.
- 23) Magrabi, F.M., Chung, Y. S., Sohn, S.H., and Yang, S. J.(1991).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24) Prince, M.(1993a). Self-concept, money beliefs and valu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4, 161-173.
- 25) _____.(1993b). Women, men, and money styl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4, 175-182.
- 26) Porter, N.M. and Garman, E.T.(1992). Money as part of a measure of financial well-being.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5(6), July 820-826.
- 27) Wilhelm, M.S., Varcoe, K., and Fridrich, A.H.(1993). Financial Satisfaction and Assessment of Financial Progress: Importance of Money Attitud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81-198.
- 28) Yamauchi, K.T., Templer, D.I.(1982). The development of a Money Attitud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5), 522-528.